

장흥군수, 무소속 현직 VS 민주당 후보...지역민 선택 관심

전·현직 출마 民 후보군까지 7파전

3연속 무소속 단체장 당선 '이번엔'

미래 청사진 제시·청렴도 회복 관건

전남 서남부권 교통 요충지이면서도 열악한 지역경제 규모와 낮은 행정 청렴도, 인구소멸 위기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할 장흥군수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힌다. 지역 위상 추락 책임론과 지역발전 인물론 간의 대립이 조기에 과열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전투구 양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일곱 차례 지방선거에서 네 번이나 당적이 없는 무소속 군수를 선택한 전례없는 민심을 보여준 지역민들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이목이 쏠린다.

현재까지 6·1지방선거에 장흥군수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군은 광태수 전남도의원, 김성 전 장흥군수, 김순태 전 국무총리실 정책담당관, 사순문 전남도의원, 신재춘 전 전남지사 정책특별보좌관, 정중순 현 장흥군수, 조재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지방자치특별위원장, 홍지영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대변인 등 8명이다.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 출신 등 다양한 직업군도 눈에 띈다. 당적이 없는 정 군수를 제외하고는 7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본선은 경선을 통해 확정된 민주당 후보와 정 군수의 맞대결 구도가 점쳐지지만, 그 간 장흥군수 선거는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 뒤 무소속 출마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 역시 다자간 구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장흥군의 청렴도가 2010년을 전후로 전국 600여 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최하위 등급까지 추락했다는 점에서 민선 6·7기 장흥군정을 이끌었던 전·현직 군수들의 책임론 확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 군수는 정당이나 인물 경쟁력 못지 않게 강한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하는 농어촌 선거구 특성을 심분 활용해 주민과의 접촉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규모 생활 밀착형 정부 공모 사업 유치 성과를 토대로 권역별 성장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발전 책임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정 군수와 맞대결을 펼칠 민주당 6명의 후보군 역시 저마다 책임자를 자처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김 전 군수가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8년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재선의 꿈을 접어야 했던 김 전 군수는 이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일하며 지역 발전 구상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을 키워드로 한 전남진타워 리모델링, 삼산간척지에 융복합농업특화도시 설립, 어머니 조각공원·둘레길 조성 등 관산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계획을 내놓았다.

광 도의원과 사 도의원 역시 출마 준비를 마치고 바닥 표심을 다지고 있다. 광 도의원은 민선 8기 장흥군수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지역의 정체성 찾기라고 규정하며 적극적인 인구회복 정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출생·청년 지원 정책 개발과 미래산업 준비 책임자도 자신했다. 사 도의원은 줄곧 민주당을 지켜온 신의있는 있는 정치인이자 풍부한 공직·의정활동을 기반으로 한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

장흥군민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꺼내놓지 못하고 있는 장흥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토대로 청렴도 회복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 방안을 약속했다.

장흥군수



김 전 정책담당관은 현재의 장흥을 중앙정부, 전남도, 뒷발 정당과의 연결고리가 끊긴 '멈춰진 시계'라고 평가하며 32년 간의 중앙부처 근무 경력을 획기적인 예산 확보와 지역 경기 회복으로 입증해 내겠다고 자신했다.

신 전 정책특보 역시 탄탄한 경험과 정부감각을 바탕으로 나침반을 잃어버린 장흥호의 방향타를 제대로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조직 청렴도 회복과 미래비전 발굴로 예산 1조원 시대 개막을 자신했다.

조 위원장은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급, 둘째야 대학 학자금 지원, 마을별 공동그룸형 설립과 같은 인구대책과 민원서비스 제도 획기적 개선을 통한 청렴도 회복, 남북권 스마트팜시티 조성 등 미래 산업 비전 제시에 집중하고 있다.

홍 대변인은 문화관광도시 장흥, 미래 신산업 도시 장흥의 비전 실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그는 장흥의 미래 청사진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실추된 장흥의 명예회복을 위해 이번 선거만큼은 조직과 인맥 대신 정책이 제대로 평가받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수, 전·현직 군수 리턴매치...치열한 경합 예상

행정관료·지방의회 전문가 등 출사표

민주당 경선 구도 4명으로 압축될 듯

무소속 김선일 전 교수도 출마 뜻 밝혀

6·1지방선거 전남 강진군수 선거는 현직 군수의 재선 가도에 전 군수와 행정관료 등이 도전장을 내밀어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이승욱(66) 현 군수와 강진원(62) 전 군수, 서재원(60)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오병석(60)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당 내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무소속 후보로는 김선일(62) 전 목포대 겸임교수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현직 군수 간 리턴매치가 성사돼 눈길을 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섰다 당내 경선에서 석패한 강 전 군수가 설욕을 위해 제도전에 나섰다. 경선 룰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당시 패배 원인이던 '탈당 이력' 페널티가 이번에도 적용될지가 주목된다. 반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 군수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현역 프리미엄과 다양한 공직 경험이 강점이다. 행정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전남도 행정지원국장, 문화관광국장, 여수 부시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렇게 쌓은 공직 경험을 토대로 민선 7기 공약을 대부분 완료한 점이 성과로 꼽힌다. 강진산단 100% 분양, 사업비 360억원을 투입한 제2산단 건립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 군수는 호남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민주당 강진연락소장을 역임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강 전 군수는 정통 엘리트 관료다. 그는 지난 20여 년 간 중앙부처와 전남도 주요 보직을 맡아 오면서 역량을 쌓았다.

강 전 군수는 직전 선거에서 이 군수에게 패한 설욕을 갚기 위해 절치부심 명예회복을 노리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그는 군수 재임 당시 2년 연속 1000억 원 이상 국비와 도비를 확보했고, 당시 처음으로 군 예산 4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 2018년에는 한국지방자치협회와 행정안전부의 '농어촌 단체장 역량 만족도 1위'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다.

강 전 군수는 장흥군 부군수,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 기업도시지원단장을 지내고 지난 2012~2018년 강진군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다.

서 전 부의장도 군수직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강진 출신인 그는 분열된 강진에 유능한 정치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인물론'으로 지역 민심을 다지고 있다. 기초의원부터 시작해 20여 년의 지방정치 경험이 강점인 서 전 부의장은 최근 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역발전 공약을 제시했다.

농축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융복합화, 케어안심주택 조성, 주민돌봄조직 육성, 관광 인프라 확충, 원스톱 민원행정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더 잘 사는 강진, 누구나 머물러 살고 싶은 강진, 대화합의 강진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으면서 중당당과 원활한 소통과 넓은 인맥도 서 전 부의장의 강점으로 꼽힌다.

오 전 농식품부 차관보도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최근 출마를 공식화하고 소멸 고위험 지역인 강진을 살기 좋고 인심 좋은, 자치단 강한 강소군으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으로 재직 중인 오 전 차관보는 국립종자원장,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교수는 유일한 무소속 출마 예정자다.

강진군수 출마 예정자(가나다순)



그는 대체 에너지 분야 권위자로 전국에서 강의를 진행하며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광주일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한 그는 푸른강진21 공동의장, 강진포럼 대표 등을 맡으며 지역 발전에도 기여했다. 김 전 교수는 인구 감소로 낙후된 강진을 똑똑한 강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